藥

상처치료와 습윤드레싱

■ 자료제공/ 건강한 이웃 편집부

신체를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키고 수분과 체온을 유지하는 피부조직이 손상된 것이 상처다. 피부조직은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낫는 세 과정을 거친다. 피부조직의 혈관과 임파관이 손상되어 피가 나오면 바로 피를 응고시키면서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3단계 상처 치유과정을 시작한다.

최근 새로운 습윤환경 상처치료법이 나와 관련제품이 병의원에서 쓰이고 또 약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이름하여 습윤 드레싱제품으로 메디폼, 더마플라스트 하이드로액티브, 테가솝, 듀오덤… 등이 있다. 습윤드레싱 제품은 상처의 염증기에 진물을 흡수하고 증식기에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상피세포의 복원을 촉진하여 가능하면 흉터가 덜 생기게 하면서 상처를 빨리 낫게 한다. 그리고 상처를 밀폐시켜 세균감염을 억제하고 상처가 마르면서 오는 신경자극이 적어 통증도 줄어든다.

하지만 습윤환경 상처치료법을 잘못 사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 습윤드레싱 제품은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 정도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거즈로 물기를 없앤 자리에 바로 드레싱제품을 붙이면 되며 진물이 제품에 찰 정도까지인 3-5일 정도 그냥 붙여두면 된다. 이미 발생한 흉터를 없애거나 흉터가 전혀 없이 치유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시중 습윤드레싱 제품은 상처크기나 위치에 맞추어 쓸 수 있는 포장, 상처크기에 따라 잘라 쓸 수 있는 포장, 방수포장 밴드형 등 다양하게 있다. 조금 두껍고 방수포장이 되어 있는 밴드형은 팔이나 다리에 붙일 때 쓰면 좋다. 얼굴에는 밴드형으로 투명하게 나온 제품이나 잘라서 쓸 수 있고 피부에 잘 붙어 굴곡이 있는 부위가 아니면 따로 밀착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딱지가 생긴 후라도 딱지 밑에는 염증기가 반복되거나 증식기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것을 권한다. 가능하면 딱지를 물에 불려서 제거하고 붙이기를 권유하지만 딱지를 떼기 힘들면 그 위에 그대로 붙여도 된다. 그리고 고름이 잡혀 있으면 소독하여 고름을 빼내고 붙인다. 일단 공기 중에 노출된 제품은 남는 것을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결한 곳에 밀폐하여 보관한다면 1~2개월 정도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습윤드레싱 제품도 아무 상처에나 적용할 수는 없다. 가벼운 화상인 경우는 수포가 터진 뒤 진물과 화기가 완전히 없어진 뒤 사용하거나 아니면 화상 전용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로 꿰맨 상처도 실밥이 터질 수가 있으며 칼에 베인 상처는 진물이 별로 없어 일반밴드로도 치유가 가능하다. 특히 세균감염이 된 상처, 뼈 근육 인대 부위 상처, 결핵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상처, 2도 이상 화상, 과민성피부 (접착성분알러지 켈로이드체질 아토피피부)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의사 약사 등과 의논하여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여야 한다.